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조 동 기*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핵심단어: 중산층, 중간계층, 계층귀속의식, 계층의식, 지위집단, 양극화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면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언론매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의미는 중간 이상의 소득집단,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고학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력 화이트칼라 등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현대사회연구소, 1985; 한상진, 1987; 김경동, 1991; 조돈문, 1996; 김영모, 1997; 함인희 외, 2001). 전통적인 계층론이나 계급론에서는 중간계층이나 중간계급이 아닌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이 용어가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홍두승, 2005:5). 이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계급이라는 용어가 공산주의 용어로 인식되면서 학술적으로도 사용이 금기시된 배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신광영, 2006:25).

이재열(2006)에 따르면 ‘중산층’ 개념은 국가별 특성과 경로의존성이 존재하여, 국가마다 개념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정책적 함의가 다르다. 서구의 경우 중간계급(middle class)은 본래 귀족과 농민으로부터 전문직과 상공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류’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이 엘리트를 추종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신중간대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은 1960년대에는 자영업주와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197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1987년에는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이재열, 2006). 이와 함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중산층’ 담론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1980년대 ‘중산층’과 일본의 1970년대 ‘중류’ 개념은 미래 변화의 주역이나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는 중심축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1970년대, 일본의 1990년대, 한국의 2000년대 중산층 담론은 계층간 분절의 심화, 탈산업화, 몰락하는 중간계층 등의 위기감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중산층론도 절망 혹은 추락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대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에 관한 담론 변화와 관련하여 중산층 개념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1980년대와 같이 중산층의 규모를 늘려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의 중산층, 즉 ‘절대적 중산층’이 강조되고, 2000년대와 같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계층 양극화의 해소가 목적인 경우에는 주관적 기준인 ‘상대적 중산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홍두승, 2005:103-4).

이 글은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연구문제는 중산층을 판별하는 객관적인 지표설정 및 그 기준에 의한 한국사회 중산층의 규모 추정 및 그 변화 분석, 중산층의 사회경제

적 특성 분석, 주관적 계층 귀속 및 중산층 귀속 비교 분석, 중산층 귀속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등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층 양극화 담론의 성격을 진단하고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중산층의 개념과 분석 방법

1. 중산층의 개념화

한국사회에서 독특하게 등장한 중산층의 개념은 전통적인 계급론의 맥락에서 보자면 ‘중간계급’에 대한 논의와 닿아있다. 고전적 계급이론은 중간계급의 독자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두 진영으로 발전되어 왔다.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양극화를 주장하는 맑스의 계급이론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제외한 ‘중간계층’은 계급구조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언젠가는 해소될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확산되는 관료제와 더불어, 맑스주의 내부에서도 성장하는 ‘중간계층’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현대의 신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중간계층’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oulantzas, 1975; Carchedi, 1977; Wright, 1978; Szymanski, 1983).

개인과 집단의 시장상황을 강조하고, 동질적인 삶의 기회와 시장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서의 계급을 강조하는 베버주의적 전통에서도 ‘중간계층’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다렌도르프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위치 외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여 관료적 구조내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위를 강조하면서, 현대사회에서의 조직체의 성장,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다양한 신중간계급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Dahrendorf, 1959). 개인의 계급적 위치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생활양식, 생산자원의 소유, 조직적 위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생산자원 소유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계층적 차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중간계층’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방향 또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홍두승, 2005). 첫째는 사회학계의 중간계급에 대한 논의로서, 중산층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중간에 위치하는 층이다(예. 김경동, 1991; 김

영모, 1997). 두 번째는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의하는 중간소득계층으로서 주로 중산층의 확대와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초점이 주어졌다(예. 홍성민 외, 1999; 홍석표 외, 2003). 마지막으로 정치학계의 중간계층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단간 갈등을 완충하는 집단으로서의 중산층이 강조되었다(예. 유영준, 1985).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용어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개념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신광영(2006)은 ‘중산층’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서민 혹은 영세민보다 낮고 부자 또는 상류층보다는 못한 집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계층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중산층에 포함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중산층은 근대화의 산물로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등장한 계층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중산층은 역사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계층으로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난 도시화의 산물이라고 간주되어 흔히 도시중산층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¹⁾ 요컨대 중산층은 중간계급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뿌리 부르주아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과 노동자 계급 가운데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자 계급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신광영, 2006:26).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의미를 기존의 계층 또는 계급의 개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홍두승(2005)은 지위집단(status group)의 관점에서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은 계급(class)의 관점에서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단일 척도로 측정되는 중간계급과 구별된다. 지위집단의 관점에서 중산층은 비경제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복합 척도로 측정된다. 이 때 지위집단은 생활양식, 교육, 직업적 위신 등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가 보다 용이한 홍두승의 중산층 개념화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간계급, 중산소득계층, 중간계층의 속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층 집단으로서 한국사회에 독특한 개념이다(홍두승, 2005:17).

2. 자료와 분석방법

‘중산층’을 경험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홍두승(2005)은 중산층 판별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신광영(2006)은 최근에는 기업농의 등장에 따라 농촌에서도 중산층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표 1> 참조), 객관적 기준은 다시 경제적인 것과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나뉜다. 경제적 기준에는 생산 및 소유관계에서의 위치와 소비 및 경제 수준이 포함되며, 전자는 직업 변수로 측정되고 후자는 가구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된다. 사회문화적 기준에는 학업성취와 문화가 포함되는데, 교육연수로 측정되는 학업성취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반면에 교육의 질이나 중산층 문화는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홍두승, 2005:97).

<표 1> 중산층 판별 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최저기준
객관적	경제적	생산 · 소유관계	직업	명칭	화이트칼라(신중단계급)
				종사상의 지위	소부르주아지(구중단계급)
	소비 · 경제수준	소득	자산	가구소득	중간소득
				금융·부동산	중간 정도의 자산
사회 문화적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연수)	대학	
			질(학교 명성)	(주관적 판단 필요)	
주관적	귀속의식	계층의 단계구분	'중산층 문화'		(주관적 판단 필요)
			중 또는 중하		

자료: 홍두승(2005:97) <표 5-2>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홍두승(2005)의 틀에 따라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 직업, 소득, 자산(주택), 교육(연수)을 사용하였다. 객관적 기준 중에서도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과 '중산층 문화'는 제외시켰다. 중산층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생활양식이나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또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주제인 만큼(홍두승·이동원, 1993; 함인희 외, 2001; 장미혜, 2006), 외적 규모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²⁾. 주관적 판별기준으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사회학회가 2006년 8월 7일부터 20일간 실시한 “한국 중산층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19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 성별, 연령 비례에 따른 다단계 층화표집의 방법으로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표집오차는 ±2.5% 포인트이며(95% 신뢰수준), 유효 표본은 1,515

2) 참고로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하는데, 주로 소득 중앙값의 50%-150% 또는 소득 제4십분위수에서 제7십분위수의 집단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례이다. 질문내용에는 중산층의 의식, 문화와 소비, 교육,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적 자본, 주택소유, 저축과 부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모든 주관적 척도가 그러하듯이, 주관적 계층의식도 측정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계층의식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역별 계층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누었을 경우 귀택은 대체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① 월 소득수준, ② 가지고 있는 재산, ③ 사회적 지위, ④ 문화수준(교육, 교양)의 각 항에 대하여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반적 계층귀속을 알아보기 위해 “[그렇다면, 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귀하의 가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역시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귀속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귀하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귀하는 현재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객관적 지표에 의거하여 중산층을 판별한 후 그 규모를 추정하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중산층의 규모변화를 분석한다. 이어서 중산층으로 분류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주관적 특성으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을 분석한다. 중산층 귀속의식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중산층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모형의 추정에서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주택소유 등의 일부 변수가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 자녀나 동거자 등 포함될 경우 변수들의 관계에 간섭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특성 분석, 중간계층 귀속의식, 중산층 귀속의식의 분석에서는 다른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III. 중산층의 규모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중산층의 구분과 규모 추정

앞에서 제시된 중산층 판별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표 2> 참조). 우선 계급적 지위는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중상계급, 신중

간계급, 구중간계급을 중산층으로 판별하였다. 이 경우 실제로 직업정보가 있는 경우만 판별가능한데 주소득자가 본인, 배우자, 부모인 경우만 포함되었다(전체 사례의 94.3%). 배우자와 부모가 주소득자인 경우 종사상의 지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구중간계급이 적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200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3,377,350원)의 약 90%, 2006년 최저생계비(1,170,422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³⁾. 자산은 주택 규모로 측정하였는데 자가소유나 전월세 구분 없이 30평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홍두승(2005)에서는 자가 20평 이상, 전월세 30평 이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가, 전월세 구별없이 국민주택규모(전용 25.7=85㎡)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2년제 대학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2> 중산층의 판별과 규모 추정

기준	단위	판별기준	전체(%)		가구주(%)		중산층 점수
계급적 지위	가구주 (주소득원)	중상계급	10.3	54.3	9.5	58.1	2
		신중간계급	25.0		25.0		1
		구중간계급	19.0		23.6		1
교육 수준	개인(응답자)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중퇴 포함)	39.9		31.5		1
소득	가구	월평균소득: 300만원	43.2		38.6		1
주택	가구	30평 이상	45.3		42.5		1

이러한 기준들은 중산층 판별에 적용된 최저기준이며, 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중산층으로 판별할 지는 경험적인 문제이다. 중산층의 획정을 위해 가구주의 직업적 지위, 가구소득, 주택규모, 그리고 본인의 교육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변수별로 중산층 기준을 충족시키면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0점을 부여한다(<표 2> 참조). 그런데 중산층 판별에서 가구주의 계급적 지위는 다른 변수에 비해 더 비중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홍두승, 2006:95), 중상계급의 경우 소득이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적어도 주변적 중산층으로 분류되도록 2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중산층 점수의 합이 3점 이상이면 ‘핵심적 중산층’, 2점 이상이면 ‘주

3) 2006년 상반기 도시근로자월평균 가구소득(3,377,350원)의 90%는 3,039,615원이고(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kosis.nso.go.kr), 2006년 최저생계비(1,170,422원)의 2.5배는 2,926,055원이다(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변적 중산층’, 1점 이하이면 ‘하층’으로 개념화 하였다. 계층구분에서 상층이 개념적으로 존재하나 본 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다. 자료에 재산규모의 측면에서 상층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해당되어 중산층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홍두승(2005)에서는 ‘하층’에 해당하는 층을 ‘비중산층’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개념적으로는 상층과 하층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층으로 국한시키는 의도에서 보다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산한 중산층의 규모는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이 각각 35.4%, 31.5%, 3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계층 판별이 가능한 몇몇 조사와 비교해 보면, 본 조사의 결과는 2002년 및 2003년의 다른 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차이가 시간적 효과 때문인지 표집설계나 측정도구와 같은 조사방법의 차이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2002년과 2003년의 전국 조사 간에도 차이를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홍두승(2005:100)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2년 조사에 근거하여 서울의 경우 핵심적 중산층이 48.8%, 주변적 중산층 27.1%, 하층(비중산층) 24.1%로 추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핵심적 중산층 53.8%, 주변적 중산층 23.1%, 하층 23.1%로, 2002년에 비해 핵심적 중산층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4).

<표 3> 주요 조사별 중산층 규모

조사	유효 표본수(명)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
2002(전국)1)	993	20.7	25.6	53.7
2002(서울)2)	1,322	48.8	27.1	24.1
2003(전국)1)	1,180	32.5	29.9	37.7
2006(전국)	1,391	35.4	31.5	33.2
2006(서울)	333	53.8	23.1	23.1

자료: 1) 홍두승(2005:181)
 2) 홍두승(2005:100)

제시된 <표 3>에서 보듯이 서울에 비해 전국적 수준에서는 핵심적 중산층은 적은 반면에 주변적 중산층과 하층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상의 차이와 조사방법의 상이함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정의

4) 서울의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핵심적 중산층 47.8%, 주변적 중산층 24.3%, 하층 27.8%로, 2002년 서울시정개발원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되는 중산층의 규모가 2000년대 중반 들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의 언론이나 정치적 수사에서 등장하는 중산층 분해나 계층양극화 논의는 객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기서는 위에서 판별된 중산층을 직업, 소득, 교육, 지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인데, 이들 기준 중에서 직업, 소득, 교육은 중산층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상용된 변수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는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으로 판별된 중산층이 실제로 어떤 내적 구성을 보이는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적 중산층으로 판별된 집단의 객관적 특성은 최소기준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직업, 소득, 교육의 분포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계층별 직업, 소득, 교육의 분포

변수	구분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	전체	통계값
직업	전문·관리직	5.6	0.2	0.0	2.4	$\chi^2 = 161.681^{**}$
	준전문직	8.1	3.7	2.1	5.1	
	사무직	16.0	12.7	4.1	11.7	
	판매직	24.8	24.7	21.0	23.7	
	서비스직	12.2	20.5	21.3	17.2	
	생산직	2.5	5.9	12.3	6.3	
	농어민	1.4	3.4	6.4	3.4	
	기타	29.4	28.9	32.8	3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6	27.1	52.6	24.2	$\chi^2 = 593.922^{**}$
	200-400만원 미만	27.8	49.0	46.9	39.4	
	400-600만원 미만	41.0	15.8	0.5	22.3	
	600만원 이상	27.6	8.1	0.0	1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6	20.3	41.5	19.6	$\chi^2 = 599.514^{**}$
	고졸	22.1	46.9	57.7	39.4	
	대학 이상	73.3	32.8	0.8	4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 .01$

앞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심적 중산층은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크게 높은 반면에, 하층에서는 생산직과 농어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준전문직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기타 범주의 비중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응답자 중 주부의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직업적 기준으로 중산층의 판별은 화이트칼라(전문직, 관리직, 준전문직, 사무직)와 구중간계급이었는데, 기타 범주를 제외하면 핵심적 중산층은 판매직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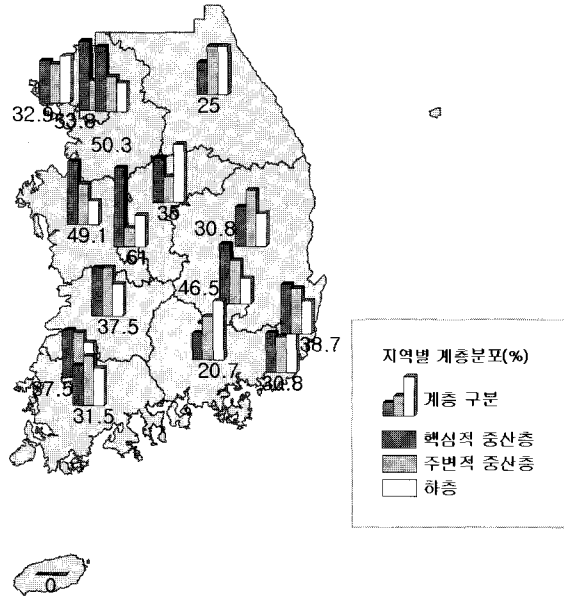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산층의 소득 분포를 보면 핵심적 중산층은 다수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및 400-6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해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반면에, 주변적 중산층은 200-400만원 미만, 그리고 하층은 200만원 미만 범주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중산층을 판별하는 소득의 최저기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이었는데, 핵심적 중산층은 대체로 4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범주형으로 측정된 문항에서 범주의 중간 값을 대입하여 원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핵심적 중산층 470만원, 주변적 중산층 263만원, 하층 147만원으로, 하층에서 핵심적 중산층으로 갈수록 각 단계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산층의 교육수준을 보면 핵심적 중산층 다수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반면에, 주변적 중산층은 고졸, 하층은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중산층 판별기준에서 핵심적 중산층이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 중산층에서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더라도 핵심적 중산층이 되지 못하는 층도 있고, 핵심적 중산층인데도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제시된 <그림 1>은 지역별 중산층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핵심적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61.0%)이고, 서울(53.8%), 경기(50.3%), 충남(49.1%), 대구(46.5%)가 높은 편인 반면에 경남(20.7%)과 강원(25.0%)은 낮은 편이다. 주로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핵심적 중산층의 지역적 분포는, 주관적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특성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핵심적 중산층은 직업적으로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크게 높고, 소득수준의 측면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의 측면에서는 대학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핵심적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1> 지역별 중산층의 분포



IV. 주관적 계층의식과 중산층

1. 계급의 주관적 지표와 중간계층 귀속의식

직업적 위신이나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계급은 개인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즉 주관적 계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인식을 배제한 어떠한 계급 개념도 완성된 것일 수 없다. 예컨대 주변의 사람들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타당한 계급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쉽지 않지만, 개인 스스로의 계급인식이 그의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시킨 채 계급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스스로를 중간계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간계층의 친구들과 사귀고, 중간계층의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녀에게도 중간계층의 열망을 심어줄 것이다. 개인의

인식이 그의 객관적 계급적 위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인식은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Veenhoven, 2002).

개인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인 조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직업적 지위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교육, 소득, 숙련수준, 업무관련 의사결정능력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Jackman and Jackman, 1983). 잭맨과 잭맨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의 58%,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자신을 노동자 또는 빈곤층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트 등(Wright et al., 198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미국사회에서 계급은 인종과 마찬가지로 집합 정체성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계급적 연대는 특히 하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Jackman and Jackman, 1983). 주관적 계층의식의 관점에서 계급을 접근하는 경우 접하게 되는 중요한 한계는 계층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직업, 재산, 생활양식과 어긋나게 자신의 계급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응답자들의 주관적 계층귀속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보아 귀하의 가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중간계층 귀속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11점 척도 상에서 8-10점을 상층, 6-7점을 중의 상, 5점을 중의 중, 3-4점을 중의 하, 0-2점을 하층으로 간주하였다. 즉 3-6점의 구간을 중간계층으로 보았다.

제시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 중간계층 귀속 비율은 73.8%이다. 이를 다른 조사와 비교해 보면, 표본이 크고 가구조사 방식을 취하는 통계청 조사에서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대체로 낮게 나오는 편이다. 일반적인 의식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90년대 중반 90% 수준에서 IMF 금융위기 이후 70%대로 떨어진 후 2000년대 초반에 올라갔다가 현재는 다시 떨어지는 추세이다. 앞에서 판별한 계층 범주와 중간계층 계층귀속을 교차시켜보면 예상대로 중간계층 귀속비율은 핵심적 중산층에서 가장 높고 하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주요 조사별 중간계층 귀속 비율

연도	지역	표본수(명)	계층단계	계층귀속			계(%)
				중의 상(%)	중의 중(%)	중의 하(%)	
1968	서울1)	715	4	23.8		37.8	61.6
1976	서울1)	776	5	14.6		35.1	49.7
1979	전국1)	2,000	5	14.8		32.4	47.2
1984	전국1)	1,016	7	6.1	37.2	31.6	74.9
1995	전국1)	2,000	5	9.4	54.2	28.8	92.4
1998	전국1)	1,000	6	5.1	35.2	36.7	77.0
1999	전국2)	30,000	6	16.8		38.2	54.9
2002	전국1)	2,002	9	12.0	43.6	24.5	80.1
2003	전국2)	30,000	6	18.6		37.5	56.2
2006	전국	1,515	11	8.1	38.9	26.8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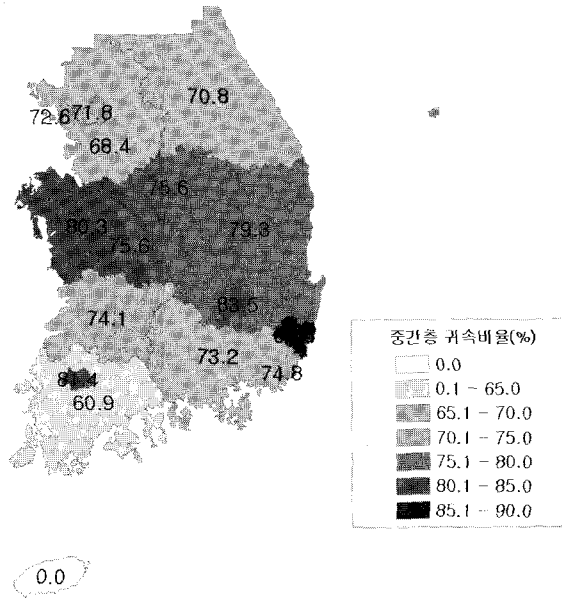
자료: 1) 홍두승(2005)
 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9 및 2003.

1990년대 이후 조사된 조사에서 보면 중간계층의 세 범주 중 최하위 범주인 ‘중의 하’로 인식한 사람이 25-4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 층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보자면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간계층’에는 다소 못 미치는 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홍두승, 2005:13). 본 연구의 자료에서 만일 ‘중하층’ 귀속을 중간계층에서 제외한다면, 상층을 포함하여 중간계층 이상과 동일시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7%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다수의 사람들이 큰 범주로서의 중간계층에는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간계층의 주변적 위치에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하층’ 범주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내부에서 ‘중의 하’가 늘어나는 경우도 중산층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있다(홍두승·김병조, 2006:9).

<표 6> 중산층의 계층귀속

계층구분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	전체(%)
귀속계층				
상층	2.5	0.0	0.0	1.1
중간계층	85.5	70.4	59.5	73.8
(중의 상)	(13.9)	(5.4)	(2.1)	(8.1)
(중의 중)	(49.5)	(36.9)	(24.9)	(38.9)
(중의 하)	(22.1)	(28.1)	(32.6)	(26.8)
하층	12.0	29.6	40.5	2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2> 지역별 중간계층 귀속 비율



제시된 <그림 2>를 통해 지역별 주관적 중간계층 귀속의식을 보면 중간계층 귀속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7.5%)이고, 대구(83.5%), 충남(80.3%)도 높은 반면에, 전남(60.9%)은 크게 낮은 편이다. 주관적 귀속계층에서 지역별 중간계층의 비율은 대체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의 비율과 유사하거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서울, 경기,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핵심적 중산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반면에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되는 중산층 비율이 낮은 충북에서 주관적 중간계층 귀속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고려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간계층 귀속의식간의 지역적 괴리를 보여준다.

2. 중산층 귀속의식과 결정 요인

응답자들의 중산층 귀속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귀하는 현재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게 한 결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핵심적 중산층은 35.1%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주변적 중산층은 12.2%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계층별 ‘중산층’ 귀속 (%)

귀속의식	계층구분	중산층 조사(2006)			신뢰조사 (1999) ¹⁾	가치관조사 (2006) ²⁾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하층 전체			
중산층이다		35.1	12.2	5.6	20.1	34.6	31.0
중산층이 아니다		64.9	87.8	94.4	79.9	65.4	6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2) 한상진 외(2006)

다른 조사와 비교해 보면 중산층 귀속의식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중산층 귀속을 측정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1999년 조사(신뢰조사)에 따르면 34.6%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그런데 14.5% 포인트의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도 큰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귀속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신뢰조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우리말에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귀하는 그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산층 귀속의식을 측정한 2006년의 또 다른 조사결과를 보면(한상진 외, 2006) 중산층 귀속은 31.0%로서 본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1996년의 조사결과와는 근소한 차이만 보인다. 따라서 2006년의 중산층 귀속의식은 1999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략 20-30%로 나타나는 이러한 중산층 귀속의식은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비율(주변적 중산층을 포함하여 66.9%)이나 계층 귀속에서 중간계층으로 분류된 비율(73.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산층’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된 조사에서 “귀하는 ‘중산층’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 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재산과 소비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주택, 고급 승용차, 명품, 강남 등 상층적 속성을 중산층과 연관시키고 있다⁵⁾.

중산층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또는 다항 변수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Menard, 1995; Hardy and Bryman, 2004). 중산층 귀속은 ‘그렇다/아니다’의 이분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효과적인 분석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은 중산층 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구분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 주택 소유, 교육수준, 직업과 더불어 주관적 지표인 주관적 소득수준, 주관적 재산수준, 주관적 사회적 지위, 주관적 문화수준이 포함된 것이다. 소득수준은 가구주의 소득과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1-22의 범위를 가지며, 주택 소유는 범주형 변수로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학업 연수를 측정하여 1(무학)-20(대학원 이상)의 범위를 가진다. 직업은 범주형 변수로서 ① 전문·관리직, ② 준전문직·사무직, ③ 판매직·서비스직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④ 기타 직업(생산직, 농어업직, 기타)이 참조 범주로 설정되었다. 네 개의 주관적 변수는 소득, 재산 정도, 사회적 지위, 문화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모두 0-10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지표만을 고려했을 때 중산층 귀속 확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 소유, 소득, 교육이다. 가구 소득과 주택 소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산층 귀속에는 서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는 중산층 귀속여부

5) 보다 직접적으로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불리려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월평균 소득이 약 500만원 정도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약 340만원보다 크게 높은 기준으로 중산층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산층은 부동산이나 주식, 저축 등을 모두 합해서 평균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월평균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약 10억 정도라는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데 있어 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세훈(2006)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표 8> 중산층 귀속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변수	b	Wald	Exp(b)
블록 I (객관적 변수)	상수	-4.658**	111.905	.009
	가구 소득	.254**	39.995	1.289
	직업		15.752	
	전문직·관리직	.217	.221	1.242
	준전문직·사무직	-.479	3.483	.619
	판매직·서비스직	-.737**	13.018	.478
	주택 소유	1.232**	30.695	3.427
교육 수준	.110**	12.801	1.116	
블록 II (객관적 변수 및 주관적 변수)	상수	-7.448**	149.692	.001
	가구 소득	.089	3.444	1.094
	직업		5.816	
	전문직·관리직	.224	.187	1.250
	준전문직·사무직	-.356	1.485	.701
	판매직·서비스직	-.490*	4.452	.613
	주택 소유	.725**	8.194	2.064
	교육 수준	.043	1.422	1.044
	주관적 소득 수준	.536**	23.727	1.708
	주관적 재산 수준	.410**	17.677	1.507
	주관적 사회적 지위	.141	2.102	1.151
주관적 문화 수준	.083	1.098	1.087	

* p<.05. ** p<.01

직업은 전반적으로는 의미있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는 판매직·서비스직 범주에 의한 것이며 전문직·관리직이나 준전문직·사무직의 범주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판매직·서비스직 범주의 경우 유의미하고 그 로짓 계수(b)가 음수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판매직·서비스직 조사자들이 기타 직업에 비해 중산층 귀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한 고려해 보면 위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주관적 지표로 추가된 변수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는 주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재산수준이며,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주관적 문화 수준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 주관적 지표가 모형에 포함됨으로써 나타난 변화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객관적 지표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유의미했던 가구 소득과 교육수준이 더 이상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이들 변수의

영향이 주관적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 소득 수준이나 교육 연수 자체보다는 그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중산층 귀속의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산층 귀속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주택 소유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주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재산 수준의 순이다. 주택 변수의 로짓 계수(b)는 .725이고 $e^{.725} = 2.064$ 이므로, 소득범주의 한 단위 변화에 따라 중산층 귀속의 승차(odds)는 2.064배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 변수의 영향은 다른 유의미한 변수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주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재산 수준의 승차는 각각 1.708과 1.507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이들 변수의 변화가 중산층 귀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로 경제적인 변수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생각하고 있으며, 상층에 버금가는 기준으로 중산층을 설정하고 있다는 앞의 결과와도 이어진다. 요컨대 중산층 판별에 적용된 객관적 변수 즉, 직업, 소득, 재산, 교육 중에서 주관적 중산층 귀속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택소유 여부로 측정된 재산 변수뿐이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산층 귀속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V. 맺는 말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객관적으로 중산층은 직업, 교육수준, 소득, 주택 등의 기준으로 판별되며,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2년제 대학이상,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가 판별기준이 된다. 주관적으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의 규모는 약 66.8%로서, 그 중에서 핵심적 중산층 35.4%이고 주변적 중산층 31.5%이다. 다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객관적 지표상으로 2000년대 중반 들어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주관적 지표를 통해 계층귀속의식을 분석해 본 결과, 사람들은 매우 높은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인 기준으로 중산층을 생각하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재산 10억 이상을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상 상층에 버금가는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로 보면 주관적 중간계층 귀속과 중산층 귀속은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간계층 귀속은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은 약 20%로 나타나, 2000년을 전후하여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객관적 중산층 비율과 주관적 중간계층 귀속 비율간의 괴리 정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의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중간계층 귀속 비율이 오히려 높은 반면에, 객관적 지표상으로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관적 귀속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 여부는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를 제외하면 소득, 교육, 직업과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재산 정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규모가 커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지나친 쏠림이 없으면서 사회통합이 잘 된 사회이고,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균형자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함으로써 빈곤층의 박탈감을 이용하려는 민중주의를 억제하고, 사회적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재열, 2006). 그런데 중산층의 규모를 키우는 것과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에서도 계층의 양극화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논의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산층의 규모를 늘려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의 중산층 즉, '절대적 중산층'이 강조되고, 박탈감으로 인한 계층 양극화의 해소가 목적인 경우에는 주관적 기준의 중산층인 '상대적 중산층'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언급되는 계층의 양극화 현상은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1991) “한국 중간계급 연구동향”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117-142.
- 김영모 (1997) 《한국의 중산층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보건복지부 (2006) www.mohw.go.kr
- 신광영 (2006)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1차 발표자료집, 19-28.
- 유영준 (1985)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중간계층의 역할에 관한 소고” 《개인과 국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1-182.
- 이재열 (2006)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중산층과 한국의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3차 발표자료집.
- 장미혜 (2006) “한국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중산층과 한국의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3차 발표자료집, 59-89.
- 장세훈 (2006) “중산층의 주거현실에 비춰본 중산층 육성 정책의 방향” 《중산층과 한국의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3차 발표자료집, 123-149.
- 조돈문 (1996) “중간계급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적 이질성” 《한국사회학》 302(여름호):269-303.
- 통계청 (2006) kosis.nso.go.kr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사회의 신뢰 실태조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상진 (1987)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한국사회학》 21(여름호):121-148.
- 한상진·김병조·은기수·정철희·조동기 (2006)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변동 비교연구” (미간행 연구보고서).
- 함인희·이동원·박선웅 (200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 현대사회연구소 (1985) 《한국 중산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85-13.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두승·김병조 (2006)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1차 발표자료집, 3-18.

- 홍두승·이동원 편 (1993)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소형 아파트단지 과밀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석표·원종욱·백화중·김성일·홍미 (2003) 《경제위기 직후의 중산·서민층 생활 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성민·민주홍 (1999) 《IMF 시대의 중산층 약화실태와 재구축방안》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 Carchedi, Guglielmo (1977)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Dahrendorf, Ralf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dy, Melissa. and Alan Bryman (eds). (2004) *Handbook of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Jackman, Mary R. and Robert W. Jackman (1983)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nard, Scott. (1995)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07.106). Thousand Oaks, CA: Sage.
- Poulantzas, Nicos (1975)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translated by David Fernbach). London: Verso.
- Szymanski, Albert (1983) *Class Structure: A Critical Perspective*. New York: Praeger.
- Veenhoven, Ruut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33-45.
- Wright, Erik O. (1978)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Verso.
- Wright Erik O., Cynthia Costello, David Hachen, and Joey Sprague (1982) “The American Class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December):709-726.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f 'Joongsancheung'

Dong-Gi Jo

The 'Joongsancheung(JSC)', a unique term for the middle class in Korea, is defined as a stratum sharing common lifestyles and a certain level of life chances. It involves non-economic factors such as life chance,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groups as well as economic factor. Such objective measures as the occupational status of the main breadwinner, family income,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respondent, and subjective measures of class identification are used for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JSC. Data from a national survey of 1,515 respondents is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JSC in size and the major determinants of class ident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re is no strong evidence of any significant change of the JSC by the objective measures during the recent decade, there seems to be a slight decrease in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n addition, binary logist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self-identification of JSC is heavily influenced by house ownership, along with subjective evaluation of one's own income and property ownership.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pparent class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reflects not so much objective conditions but subjective perception of respondent of his or her circumstance. It is suggested that problems of housing and relative deprivation people have as regards income and property should be resolved to alleviate such class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Key Words: Joongsancheung, middle class, class identification, class consciousness, status group, polarization